



향기가득 뽕뽕한 빨래 섬유유연제 제대로 사용하기

뽕뽕하게 잘 마른 수건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향기는 절로 기분을 좋게 만든다. 이처럼 좋은 향과 부드러운 감촉을 위해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지만, 정작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소중한 피부 건강을 위해선 섬유유연제의 올바른 사용법이 필수다.

글_박영주 기자(문화저널21)

향이 전부? _____ 안전한 섬유유연제 고르자

섬유유연제는 세탁 보조제로서, 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엄연한 세제다. 때문에 품질 보다 향을 우선시하는 구입 태도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료는 과다 사용 시 자극을 유발하는 물질로, 지나치게 향에 치중한 섬유유연제는 피부가 민감한 이들에겐 두드러기, 가려움, 두통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방부제와 인공 향, 소취제 등 아토피 유발 성분 및 향료의 첨가 여부 등 제품의 성분을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안전성을 우선하여 따져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는 섬유유연제에 향 성분 표시가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올해 6월부터 통관 또는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향류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알려진 26종을 0.01% 이상 쓰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과 기능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유해성이 낮은 물질이라도 노출 빈도가 잦으면 위해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합성 세제를 사용하기가 조심스럽다. 합성 섬유유연제를 대신해 식초나 구연산을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 세탁 세제를 중화시키고, 냄새를 잡아주며 섬유를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무향이라는 점이 아쉽다면 레몬 껍질 삶은 물을 추천한다. 깨끗이 세척한 레몬 껍질을 물에 넣고 팔팔 삶아 한 김 식힌 후, 마지막 헹굼 시 사용하면 살균은 물론 옷감에 은은한 레몬 향이 배어난다.



투입구의 맥스(Max)선을 넘지 말 것 _ 섬유유연제를 많이 넣는다고 좋은 향기가 날까? 향은 강해질지 몰라도 의류의 흡수성이 떨어지고 섬유유연제 찌꺼기가 의류에 남아 끈적임을 유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 득보다 실이 많은 셈이다. 제품별로 적정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 뒷면에 적힌 권장 사용량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 섬유유연제 향을 지속시키기 위해선 세탁물의 양과 탈수시간을 제대로 지켜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먼저다. 세제가 의류에 남아 있으면 유연제 향기가 잘 나지 않기 때문. 그리고 섬유유연제 투입 후 탈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향 성분이 전부 날아가 버린다. 빨랫감이 적고 얇다면 1분, 두꺼운 옷이라면 3분 정도가 적당하다.

섬유유연제를 세탁기에 투입할 때 투입구의 맥스(Max)선을 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선을 넘겨 가득 채우면 세탁 시작과 함께 섬유유연제가 흘러나와 세탁 세제와 섞이면서 세탁 효과가 현저히 감소된다. 섬유유연제는 되도록 세탁 3번에 1번꼴로 투입 횟수를 줄이거나 권장 사용량보다 적은 양을 사용하고, 피부에 직접 닿는 민감한 속옷에는 사용하지 않는 편을 추천한다.

섬유 타입별 _____ 그웨잇 or 스투핏 사용법

물세탁 가능한 소재, 그웨잇! _ 섬유유연제는 물세탁이 가능한 소재에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물세탁 여부는 의류에 달린 세탁 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면이나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나일론, 모직 등의 섬유 소재가 대표적이다. 나일론과 같은 화학섬유는 정전기 발생이 잦아 스프레이형 섬유유연제를 뿌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스프레이형 섬유유연제는 드라이클리닝 표시가 돼 있는 의류에 사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의류가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수건과 기능성 소재 의류, 스투핏! _ 수건은 흡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섬유유연제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섬유유연제를 사용할 경우 수건 원단의 흡수 기능을 분해시켜 흡수성을 감소시킨다. 마찬가지로 극세사 이불 역시 섬유유연제가 섬유 표면을 코팅시켜 극세사 특유의 포근한 느낌을 감소시키고, 보풀을 많이 발생시켜 가급적 사용하지 않길 권한다. 흡한, 속건, 방수 기능을 지닌 기능성 스포츠웨어는 전용 중성세제를 사용해 세탁해야만 제품의 기능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면 유연제에 함유된 정전기를 방지하는 대전방지제 성분이 기능성 소재 의류의 땀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미세한 구멍을 막아 소재의 특수성을 망가트린다. 이밖에도 마 소재와 리넨, 임산부 옷에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섬유유연제도 유통기한이 있다?! _ 식품이나 화장품의 유통기한을 준수하듯, 섬유유연제 역시 개봉 후엔 가능한 빨리 소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도로 정해진 유통기한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최소 1년, 최대 3년까지 유통기한으로 보는데, 섬유유연제는 개봉 후 1년이 지나면 향 성분이 차츰 줄어들어 유연제로서의 역할이 감소한다. 또한 섬유유연제 속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외부 환경에 의해 분리 또는 알갱이가 생겨 날 수 있다. 상한 것은 아니지만 세탁 후 잔여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섬유유연제는 정전기 방지제나 청소용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낫다. 시트형 섬유유연제 역시 개봉 후 1년 안에 사용하길 권장된다. 때문에 처음부터 대용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소량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라 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콤팩트한 캡슐 타입의 1회용 제품이나 소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TIP

섬유유연제, 드림용 VS 일반용의 차이점

드림 세탁기와 일반 세탁기는 세탁 방식과 구조가 달라 세탁 세제는 물론 섬유유연제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드림세탁기가 일반 세탁기에 비해 적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용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면 거품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드림 세탁기는 보통 40℃의 물로 세탁하기 때문에 찬물로 세탁하는 일반 세탁기에 비해 일반 섬유유연제를 쓰면 향이 쉽게 날아가 향 지속성이 떨어진다. 고온에서도 향을 낼 수 있도록 드림 세탁기 전용 섬유유연제를 쓰는 것이 섬유유연제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드림 세탁기의 건조기능이나 건조기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시트형 섬유유연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부직포 시트에 섬유유연제를 흡수시킨 뒤 건조시킨 제품으로, 필요한 매수만큼 티슈처럼 뽑아 쓸 수 있는 간편함 때문에 최근 각광받고 있다.



섬유유연제의 무한 변신, 다양한 활용법

▶ 냄새 잡는 섬유탈취제

최식 다음날 옷에 밴 음식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섬유탈취제를 섬유유연제로 만들 수 있다. 분무기 용기에 500ml의 물, 15ml의 섬유유연제를 넣고 잘 흔든 후 옷에 뿌린 후 바람이 잘 드는 그늘에 옷을 말리자. 자켓 안쪽이나 머플러 등 정전기가 생기기 쉬운 곳에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집안 청소, 먼지 제거에 탁월

물과 섬유유연제를 2:1 비율로 섞은 뒤 분무기에 넣어 마른 걸레에 스프레이 한다. 가구 위 먼지나 TV, 전자제품을 닦으면 먼지가 쉽게 제거되고 코팅의 효과로 먼지가 잘 달라붙지 않는다. 걸레의 마지막 행굼 물에 섬유유연제를 살짝 풀어 빨면 은은한 향기가 더해진다.



▶ 줄어든 니트 완벽 복구하기

세탁을 잘못해 줄어든 니트를 간단히 복구할 수 있다. 미지근한 물에 섬유유연제 14ml 정도를 넣고 잘 풀어준 다음 니트를 1시간가량 담근 후 깨끗이 행궈내면 해결!



▶ 반짝반짝 세차 광내기

세차 후 왁스가 없을 땐 마른 걸레에 섬유유연제를 묻혀 닦으면 마치 왁스칠을 한 것처럼 차에 광택이 난다.



▶ 동물 털 제거에 최적

해묵은 시트형 섬유유연제는 시트의 정전기 방지 효과로 손이 닿기 어려운 구석의 먼지를 닦아내거나 반려동물의 털 뭉치를 쉽게 제거하는 청소용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빨래 바구니나 운동가방에 넣어두면 불쾌한 땀 냄새를 줄일 수 있다.

